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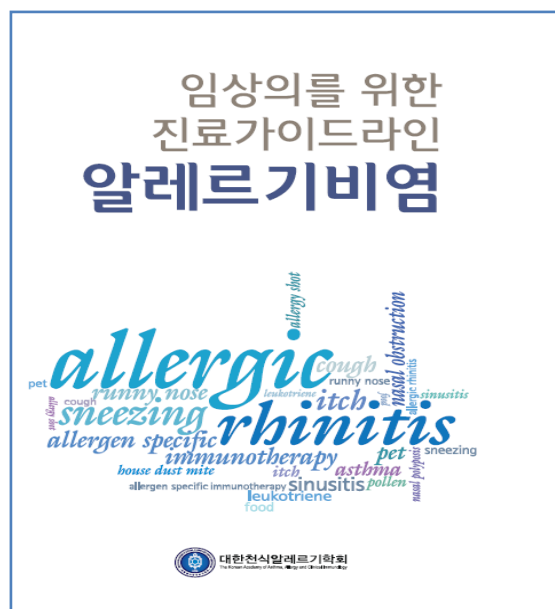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비염연구팀을 소개드립니다.

비염연구팀은 2014년 7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산하 7개 연구팀 중 가장 늦게 전남의대 고영일 교수를 팀장으로 총 43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하였습니다. 연구팀 창립의 목적은 근래 급격한 비염 유병률 상승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한국 실정에 적합한 연구와 사업을 통한 비염의 올바른 진단, 치료법 정립을 통해 만성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11월부터는 고려의대 유영교수가 연구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와 봉직의 등이 고루 구성된 다학제 공동팀입니다.

1) 알레르기비염 진료가이드라인 제작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에 걸쳐 알레르기비염 진료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작 목적은 국내 비염 환자의 임상적 특성 파악, 맞춤형 진단 및 올바른 치료지침 확립을 위한 한국형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선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상적 요구를 총 40개의 핵심 질문으로 만들고, 참여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안을 정리하여 총 70쪽의 실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임상의를 위한 알레르기비염 진료가이드라인>은 일선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임상적 요구를 반영한 지침으로 핵심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올바른 환자 진료 및 질병의 예방과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홈페이지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에서 PDF형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다기관 공동연구 사업

비염연구팀의 강점인 3개 유관 진료과 전문의가 고른 분포와 전국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기관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한림의대 최정희교수를 연구 책임자로하는 <한국꽃가루 알레르기환자에서 구강알레르기증후군>다기관 연구가 2016년 5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학

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다기관 연구에는 전국의 총 27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구강알레르기 증후군의 유병률 및 임상양상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의 다기관 대규모 임상연구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교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구강알레르기증후군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균관대의 홍상덕교수가 주도한 <알레르기비염 진료행태조사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비염진료 행태에 대한 다기관 연구로 그 결과를 SCI 논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ClinExpOtorhinolaryngol 2017). 현재는 차의대 지혜미교수 주도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서 동물털 알레르겐 감작 및 임상양상>에 대한 다기관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논문 발표실적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 중 핵심질문 발췌 과정을 영문논문으로 작성하여 순천향의대 양현종교수가 SCI 논문에 실었고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17), 2016년에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많은 의사 회원들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인하의대 김영효교수가 대한의사협회지에<임상의를 위한 알레르기비염 진료지침>3편을 (1편 진단, 2편 내과적 치료, 3편 포괄적 치료) 출판하였습니다.

4) 알레르기비염 심포지움 개최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알레르기비염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진료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국내 저명한 알레르기 비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심포지움은 비염팀의 다기관 연구를 소개하고 비염 감별진단의 핵심, 개원의들을 위한 진료핵심 및 증례풀이 등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치료가 어려운 비염환자의 해결을 위해 다학제 협진 과정을 강의로 만든 <그 남자! 그 여자!> 시리즈는 참신한 증례풀이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비염연구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러한 연구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학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저의 비염연구팀은 전국적인 회원망과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최신 진료정보교환, 진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연구 및 일반인들에게 비염의 올바른 인식과 예방에 대한 홍보 등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비염 진료와 연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연구팀장 유 영